

정약영의 가장 큰 영광

6월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회
대회의수교장로회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일반 서적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봐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려니와 경건한 마음이 없이는 의심이나 하면서 성경을 보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 성경을 보려면 신약에서 사복음을 먼저 볼 것입니다. 사복음은 네 제자가 예수님의 행적을 네 방면에서 기록한 것으로 마치 한 물건을 네 방에서 바라보고 각 방면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전도한 사기(史記)인 사도행전과 그들의 서신들을 보면 기독교의 큰 테두리를 알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모세 5경, 유대 민족의 역사, 시가, 예언서들을 차례로 볼 것입니다.

책의 순서로 말하면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나중이지만, 신약은 실상이고 구약은 그림자이므로 먼저 그 실상을 안 후에 그림자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학자가 되려 하기 전에 영혼의 양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을 가지고 연구하여 동물학자나 식물학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동물과 식물을 먹어 영양을 섭취하여 몸을 살리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상점에 진열한 채소와 생선은 학자들의 연구자료로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식품으로 팔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식품을 사다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문학이나 철학적으로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여 학자가 될지라도 만일 믿음을 자라게 한 실적이 없으면 비록 성경을 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경을 먹은 것은 아니며 성경의 참 맛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사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요사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영혼이 날로 쇠하여 집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번씩 밥을 먹는데, 매일 먹는 것이 귀찮다고 한번에 며칠분을 먹어 놓고 4·5일을 굶고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한두 장을 본 것으로 10일이나 20일을 지내는 것보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게으르게 하지 말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가령 하루에 한 장씩을 본다면 260일 즉 8개월 20일이면 신약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장을 보는 시간은 5분 정도면 되는데 아무리 분주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5분을 얻지 못할 사람은 없겠습니다. 매일 세번씩 식사를 하는데, 식사 후 잠시 5분은 넉넉히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될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눈을 뜨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 곧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 좋을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담배는 잊지 않고 항상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조금도 짐스럽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일을 좋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아침에 한 대, 식후에 한 대, 밖에 나가서 한 대, 집에 들어와서 한 대, 잠 자리에서 한 대, 이웃집에 가서 한 대, 일을 시작할 때에 한 대, 쉬 때에 한 대, 지하철을 타면서 한 대, 이렇게 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기회있는 대로 담배 피우는 습관이 박혀서 담배를 위해 허비하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잠깐만이라도 기회있는 대로 성경을 본다면 하루에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을 것이고 1년이면 신·구약 성경 전부를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간)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6월의 행사

- 5월 31일—6월 4일/특별부흥회(강사: 김창인 목사)
- 6월 1일—30일/총동원 전도의 달
- 1일/충현기도원 봉헌예배
- 4일/정기제직회, 재정위원회
- 9일/교회철야기도회
- 11일/남전도회·권사회·산업전도회 월례회
- 18일/여전도회·출판위원회 월례회·재정위원회·성경학원 78학년도 1학기 수료식·
- 월간충현 6월호 발간
- 19—23일/제4회 농어촌 교역자 초청훈련
- 28일/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월례회

6월호 차례

- <권두언> 성경을 읽읍시다/주간.....2
- <이달의 말씀> 성경을 지읍시다/김창인 목사.....4
- <이렇게 답한다> 성경의 많은
의문점들을 어떻게?/정관일 목사...6
- <특집/제1회 충현선교대회의 내용들>
- 해외선교 현지보고
- ① 인도네시아: 현지인 훈련 선교지 관리토록
/서만수 목사.....8
- ② 홍콩: 동남아와 중공 선교의 발판/
홍종만 목사.....9
- 선교특강
- ① 선교계획과 선교전략/하도래 선교사.....10
- ② 한국을 기다리는 선교지역/손봉호 박사.....11
- 발제토의
- ① 한국교회와 선교의 제문제/김영한 박사.....13
- ② 충현교회 선교의 회고와 전망/홍종만 목사.....14
- ③ 선교사후보 양성문제/정기성 목사.....15
- <특집/충현기도원의 발자취>
- 눈에 보이는 기도원이 되기까지/최 환 집사.....16
- <1200자 칼럼> 5월을 보내면서/이형수 집사.....18
- <찬송가 감상 ⑤> 하늘에 찬송소리
나던 그날/김중석 전도사.....18
- <책소개> 그리스도론/김경성 전도사.....19
- <도서정보> 구입도서, 기증도서.....19
- <시편에서 듣는 주간의 만나>.....20
- <쉽게 풀어쓴 기독교 교리 ④>
- 만물을 거저 주신 하나님/이성근 목사.....21
- <구역공과> 창세기 공부(6월분 ②).....22
- <구역장 노트 ②> 해외에서 교회
선택문제 (3)/백성통목사.....23
- <교회소식>.....24
- <광고, 편집후기>.....25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 <실로암 못가에서>.....28

표지설명: 지난 5월 25일 현장에서 기공예배후 당회장 김창인 목사와 원로 장로들이 새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는 첫삽을 뜨고 있다.

월간 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제6권 제54호

월간 충현

충현교회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성전을 지읍시다



성경/고전 3:10-15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지난 5월 25일 시내 강남구 논현동 현장에서 역사적인 새성전 기공예배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편집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전을 지읍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1. 우리는 가장 가치있는 집인 성전을 짓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꼭 요긴한 것이 세가지 있습니다. 먹는 것이 참 요긴하고, 옷을 입는 것도 아주 요긴합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하여 그 집에 사는 것은 대단히 요긴합니다.

땅위에는 좋은 집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어떤 집이 제일로 좋은 집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집의 가치는 주인이 좋아야 합니다.

일류 설계사가 설계물 잘 그리고, 가장 좋은 재료를 많이 준비해 놓고, 가장 훌륭한 기술자들이 정성을 다 쏟아서 좋은 일기 속에서 집을 지으면, 제일 좋은 집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의 가치는 건물에 있는 것보다 "그 주인이 누구냐?" 즉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도적이 살면 도적의 소굴이 되고, 결모양으로는 집이 좀 못해도 임금님이 사시면 궁궐이라고 합니다. 궁궐이라는 집의 가치와 도적의 소굴이라고 하는 집의 가치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기공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짓는 집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집입니까!

둘째로 집의 가치는 짓는 목적이 좋아야 합니다.

집이 좋고 주인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무엇을 하려고 짓는 집인지, 집을 짓는 목적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비록 임금님이 지으셨어도 항상 죄인을 가두는 집이라면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가운데도 천국이 있는 동시에 무서운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시는 이 집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지은 바 죄를 회개하고, 좀더 바로 살기로 결심하며, 민족과 후손을 위해 축복해 줄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신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집을 짓습니다. 나라의 복의 기관이 됩니다. 후손들에게 복의 기관이 됩니다. 오고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영광의 복을 나눠 주는 하늘나라의 지소를 짓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 우리가 이 귀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임금님은 예배당 지어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설계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당을 짓는 허락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임금님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꼭 같은 시간이지마는 복령땅의 성도들은 얼마나 울면서 예배당 짓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배당 지을 수 있는 은총이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윗만 못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가신 분들보다 낫지 못하지만 다만 복을 더 많이 받은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전부가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부산까지 피난가고 도망다닐 때 서울에 돌아갈 생각을 감히 해보았습니까? 부산 앞바다의 물고기 밥이 될 뻔한 것을 하나님은 유엔군을 보내어 악한 공산군을 몰아내고 우리를 서울까지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서울에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공하심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성전을 짓게 된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았읍니다. 저는 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좋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 기공식을 갖는 이 시간에 저 북한이 평양·신의주·함흥·회령까지 돌아가 성전 짓게 되는 날을 허락해 달라고도 기도해야겠읍니다. 하나님은 못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영광스럽게도 이 거룩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한번 따라 읽읍시다.

-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려고
- 지역사회에 복의 기관을 만들려고
- 오고오는 세대에, 영원한 세대에 복음의 천국의 지소를 건설하려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좋은 목적을 정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4.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정성을 다하여 일합니다.

"성전을 짓게 된 것은 좋지만 돈을 많이 내어야 되겠으니 현금내려면 큰일났구나..."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마십시오. 꿈에라도 이런 시험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새성전을 짓는 날부터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두가지로 갈라지기 쉽사운데, 마음이 웅출해지는 사람과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생기겠나이다. 마음이 웅출해진 자는 영육이 아울러 가난해지겠사옵고 마음이 넓어지는 자는 영육이 아울러 부자들이 되겠사오니, 온 성도들의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넓어진 마음그릇에 하나님이 영육의 필요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다 짓는 날 여러분 가정 중에 10억 100억의 부자가 수두룩히 나올 줄을 압니다.

우리가 돈을 요만큼 들여서 짓겠다, 나는 현금을 요만큼 해도 책임을 다 했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내 생명 다 바쳐도 우리는 할 일을 다하는 것은 못됩니다. 최선의 정성을 바치는 우리가 됩시다. 현금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이 많으나 모자라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린애가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몽땅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 어린애도 다른 사람들도 다 배부르니 열두 광주리를 남겼읍니다. 문제는 정성에 있습니다.

둘째로 담대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물가는 비싸지고, 기술자는 적고 아이구 큰 돈이 들겠구나..." 하며 마음이 좁아지고 약해지면 일을 못합니다.

성전 짓는 일은 십자가 정병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마음의 승리가 먼저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감시다.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흥해도 열려집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가나안 복지가 전설됩니다.

나는 재산의 10분의 1을 바쳤으니 나는 다 바쳤거니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바칠 수 있는 정성만 있으면, 10분의 1을 바친 사람이 10분

의 2를 바친 다음에 재산이 10배나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선한 일에 용기를 내어 전진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개인이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역사회에 덕이 되고 세계에 빛이 될 것입니다.

5.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완전한 성전설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될 끝만큼도 흠이 없는 훌륭한 설계를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좋은 재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새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재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에 소요되는 자재들을 구입할 때 모자람이 없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바치는 자마다 10배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네째로 좋은 기술자들을 많이 보내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훌륭한 기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신용을 지키고 정성과 기술을 다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때를 따라 좋은 일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건축하는 일에는 날씨가 대단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알맞고 좋은 일기를 주셔서 만사형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현금하신 분들에게 더 충성함이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적어 현금하지 못해 영육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미리 준비시키셔서 복받는 사람만 꺾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일곱째 공산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전 짓는 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복을 받았읍니다마는 오늘날 공산권 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성전 짓기를 아무리 소원해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자유의 날을 주시고 우리처럼 성전 짓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원컨대 이곳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선교센터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일꾼들을 한없이 많이 키우고, 선교사 훈련으로 세계에 선교할 수 있어서, 세계의 복의 기관이 되는 날을 달라고 오늘부터 더욱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 신행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을—

아세아방송 1570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성경의 많은 의문점들을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불가, 성령의 도우심만이

정 관 일 목사

<부목사·대학부 지도>

물음/성경에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회의나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지만 또 의혹될 만한 점을 없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생각이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욥 11:7,8)고 말하였으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충분히 이해하기에 너무도 깊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 좁고 약한 데 있습니다.

성경 진리를 연구하는 데 만족하도록 해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먼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인간적인 자기 지혜로써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데서 온 것입니다. 대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연구하고 항상 배울지라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지혜와 지식과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므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전 2:11)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 16:13,14)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사람의 사고력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배우

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진성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이고 성경을 펼 때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들어가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의 이성만은 그 이성 자체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지능은 크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원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분명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명백하고 단순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도가 없는 언제든지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곡해할 열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 없이 성령의 지도 없이 읽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지라도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경건한 마음 없이 기도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애정을 두지 아니하고 성경을 펼치고 읽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의혹으로 흐려져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도리어 회의사상(懷疑思想)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이성을 주장하여 그릇된 해석을 하도록 항상 유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을 의심없이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분명히 깨달은 모든 죄무들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그것을 깨닫고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구해(요 16:24) 친히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시 34:8).



.....「만민을 위하여 기를 돌려!」는 주제 아래 지난 4월 25—30일에 걸쳐 있었던 제 1회 총현선교대회의 내용을 정리·소개한다.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요 우리교회의 당면 주요사명의 하나인 해외선교가 지난 선교대회를 계기로 지난 일들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알찬 정진을 위해 껍 유익했었다는 교회 내외의 소리들을 들을 때, 남은 일은 온 교회가 하나로 되어 이에 참여하는 일만이 남았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했다.

따라서 지난 선교대회의 내용을 정리·소개함은 그때의 깨달음과 결심을 두고 두고 새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서이다. 온 성도들의 계속적인 선교에 대한 사명과 책임으로 참여 있으시기 바란다.<편집자>.....

제 1회 총현선교대회의 내용들

차 례

· 해외선교 현지보고

- ① 인도네시아 : 현지인 훈련 선교지 관리토록.....서 만수 목사
- ② 홍콩 : 동남아와 중공 선교의 발판.....홍 종만 목사

· 선교특강

- ① 선교계획과 선교전략.....하 도래 선교사
- ② 한국을 기다리는 선교지역.....손 봉호 박사

· 발제토의

- ① 한국교회와 선교의 제문제.....김 영한 박사
- ② 총현교회 선교의 회고와 전망.....홍 종만 목사
- ③ 선교사후보 양성문제.....정 기성 목사



현지인 훈련 선교지 관리토록

선교사 서 만 수 목사

인도네시아 땅을 밟기까지

1970년 9월 25일 본 교단 제 55차 총회가 대구 서현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총회장 김창인 목사 명의의 파송장을 받게 되었다. 당시 우리 교단과 유대를 갖고 있던 국제 기구인 RES (Reformed Ecumenical Synod)에서 선교사 파송 협조청원이 있었다.

이 기관의 주축은 화란계 미국인들인데 화란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섬에 연락을 하였다. 이 섬의 중부 토라자 지역에 60여년 전부터 선교사를 파송해서 토라자족을 상대로 선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마샤라는 동네에 학교, 병원 등을 설립까지 하였다. 이 토라자 마마샤 교단과 함께 일하도록 RES에서 연결을 주어 1971년 4월 20일에 그들의 정식 초청을 받고 1971년 9월 9일 역사적인 인도네시아 선교 현지를 향해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급히 떠나느라고 입국수속이 제대로 안돼서 싱가포르에서 99일간 체류하는 중 OMF 선교부 주관의 선교사 훈련 코스를 마치고 또 인도네시아어까지 배워 가지고 마침내 남부 셀레베스섬에 도착하여 토라자 마마샤 교단 본부에 가서 법적 수속을 하여 1972년 4월 중순에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토라자 마마샤 교단과 함께 일하는 중 선교 초년생으로서 선교활동의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현지 선교사들과 충돌하기도 하면서 첫번 약속한 3년 동안 순회, 그들과의 계약을 잘 마치게 되었다.

한국 선교부 설치

1972년 6월 22일에 한국 선교부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단체로 법인체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필하였다. 그 이유는 오래된 선교부 밑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별도로 법인체 등록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자카르타에는 11세대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외제 술, 담배 등에 취해서 교회와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정글의 영혼들을 위해 찾지만 지금 내 백성들이 어두운 곳으로 몰려다니고 있으니 저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겠다 하여 1972년 7월 첫주에 25명이 모여,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설립 예배를 보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억 3천 5백 만의 인구에 한반도 9배의 큰 나라로서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는 홍콩서 서울까지의 거리와 같다. 따라서 한곳을 방문하고 돌아서 다시 그곳에 가려면 빨라도 1-2년 걸린다. 이러한 선교활동을 정리하고자 장학회를 조직, 인도네시아인들을 가르치기로 하여 4개 신학교에 장학생을 보내 1974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쯤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셀레베스섬을 돌입하며 순회집회를 하였다.

한편 교회 설립과 전도 사역에 국한해 있던 우리 선교법인체를 보강할 필요가 절실했지자 교아원, 양로원 병원, 학교 등을 할 수 있는 종합법인을 구성하고 이

를 「할렐루야」 법인체로 이름붙여 인가 받아 1974년 12월 6일자로 모든 수속을 다 마쳤다. 정글에 부족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역자들에게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본부에 특별청원을 해서 1975년에 인도네시아어로 성경을 출판하였다. 마침 인니어 표기법이 종래의 유럽식 독일식에서 1974년부터는 미국식 영어식으로 바뀌게 되어 모든 글자와 사진이 바뀌게 되자 때를 맞추어 성경을 출판, 무료로 배포하였던 것이다.

한국선교부 선교관 건립

1974년 3월 일시 귀국한 열매로 1907년 이래 처음으로 수도 자카르타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인니 주재 한국 선교부 선교관을 짓기 시작하였다. 11개월 11일만에 준공된 이 선교관은 국회의원 관사 1번지 A호에 세워진 대지 575m², 건평 200m²의 단층 건물인데 예배실, 회의실, 기도실, 응접실, 침실, 식당, 부엌, 별채(창고, 차고, 방 2)의 구조를 갖고 있다. 1976년 10월 25일에는 정글선교의 기초요 선봉이신 김창인 목사를 모시고 역사적인 개관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선교부 본부는 선교관이 있는 자카르타에 있고 셀레베스섬(남, 북부), 자바(동, 서, 중부), 수마트라(남, 북, 중부), 칼리만탄(남, 동부) 등지에 10개의 지부가 있어 10명의 지부장들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지부장들이 선교지 관리를 잘 못함으로써 급변하는 서부부터는 새로 터를 닦는 대신 기존의 터에서 계속 수고할 사람을 직접 파송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지난 4월 16일 주일에 여섯부부 전도사를 각 지부로 파송하였다.

한국선교부가 지향하는 선교사역

우리 선교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를 인도네시아에 심는 식민지적 선교정책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설리하시는 그 뜻을 간직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대로 정글 심령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무슨 교단교회가 되든지간에 개척하고 자립해까지 후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선교사역의 특징을 말하자면 ① 교파 초월 ② 집회수입 현금은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재정 정책 ③ 집회 때마다 십일조 강조('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 마음껏 축복 받자')의 세가지들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 우리 인도네시아 한국선교부는 계속해서 세계선교를 향한 기조 밝는 일을 하겠으며 인도네시아인들을 더 많이 불러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기관을 속히 설치해야 하겠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역자의 수준이 낮아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여 혼란 속에 있다. 새로운 심령을 거둬 모으는 한편 먼저 들어온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바로 걸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정리 : 오태웅 집사>



동남아와 중공선교의 발판

선교사 홍 종 만 목사

선교사로 부름받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하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려는 생각은 어려서부터 없었고 더우기 홍콩 선교사로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홍콩에 갈 사람을 구했다. 김창인 목사께서 홍콩에 가서 일할 적임자를 물색하라고 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썼으나 구하지 못하던 중 하루는 “다른 사람 구할 것 없이 홍콩사가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여 1976년 9월 20일 아내와 딸 2명, 아들 하나를 데리고 다섯 식구가 홍콩으로 떠났다. 선교사로서의 사전 준비가 없었지만, 일단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떠나게 되니 작오가 새로워지고 또 김목사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을 굳게 다졌다.

홍콩의 이모저모

그러면 홍콩은 어떤 곳인가? 홍콩의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 속의 홍콩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우리 선교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홍콩은 나라가 아니다. 본래는 중국 영토로서 광둥 지방에 속한 섬인데 1840년에 아편 전쟁 결과 영국이. 승리하여 얻은 땅으로 인구의 90% 이상이 중국인이다. 여기에서 배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구룡반도와 신계 지방도 영국이 차지하였는데 이 셋을 합쳐 크기가 우리 대구시 만큼 된다. 450만 인구를 영국 총독이 통치하고 있다.

홍콩은 세계 3대 항구 중 하나인 자연 항구로서 세계에서 18번째 수출국인데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 중국, 미국, 대만, 싱가포르, 영국, 한국 순인데 중공의 물건이 굉장하다. 우리 교포수는 400세대 1,300여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기업체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코리아 센터」가 있어 그 안에 영사관, 교민회, 한인교회, 숙소, 기업체 사무소, 아파트, 한국학원 등이 들어 있는바 교포 수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홍콩은 중공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홍콩은 공산 세계와 자유 세계와의 공개된 접촉점이다. 특별히 중공이 자유 세계와 접촉하는 곳이 바로 홍콩이다. 이곳을 통해 많은 중공 상품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가고 또 이곳을 통해 전 세계의 물건과 문화가 중공으로 들어간다. 중공 사람이 경영하는 백화점, 은행, 전시장들이 많고 기차가 매일 운행하며 관광객이 대량 출입하고 공개적으로 모집까지도 한다. 학교에서는 중공에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다.

홍콩의 종교계를 보면 1840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들이 많다. 학교라고 해야 운동장도 없고 방 1-2개 정도 갖춘 것들이다. 통계상 교회는 600교회인데 교단은 50개 교파, 신교가 45만이고 구교가 26만의 신도를 갖고 있다. 불교 사원이 500여곳에 신도는 60만이다.

날씨는 겨울이 거의 없고 여름에는 우리나라 기후와 비슷하다. 홍콩은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또

각계 각종 각 인종이 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산다.

홍콩의 문제점

홍콩, 중공, 영국의 삼각관계가 아주 미묘하다. 홍콩 사람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의욕이 없다. 대부분 중공을 자기 나라로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살아라고 하면 거절하고 영국이 싫다면서도 따라간다. 중공이 홍콩을 차지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 그대로를 좋아한다. 중공은 홍콩을 통해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또 영국은 그 확실히 비용을 여기서 벌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묘한 관계가 흐트러진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홍콩 선교의 목적

홍콩 선교의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한인 교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둘째 동남아 선교를 향한 문호가 되고 동남아에 있는 모든 단체들의 본부가 홍콩에 있으며 홍콩은 자유스럽고 모든 교통 통신이 편리해서 선교 활동하는 데에도 중요한 위치가 된다. 이러한 선교 거점을 우리는 확보해 두어야 한다. 세계 중국본토에 대한 선교이다.

한인교회 현황

나는 현재 주로 한인교회에 봉사하고 있다. 약 200명의 제직에 주일 어른의 출석이 120-130명, 어린이 40명 정도 된다. 이 교회의 특징은 나이 많은 어른이 없고 30대가 대부분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고 교인들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결월여 각 교단 교파가 다 모여 있다.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교회이다. 그러나 믿음의 바를 들어가면 굉장한 저력이 있다. 2,3년 후에 전근 가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활동은 주일 예배와 성경공부가 중심이 되는데 잘모이지지 않아 애로가 많다. 각자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각 요일마다 따로따로 해 주어야 한다. 또 「한국학원」이 있어 100여명의 학생들이 토요일이면 한글, 우리 말 노래, 역사 등을 배우는데 이 학원의 원장으로 들고 있다.

결론

중공 선교는 대단히 중요하며 또 그 길은 점점 열리고 있다. 어느 목사의 말에 의하면 성경을 가지고 중공에 입국해도 조사 안하더라는 것이다. 또 중공 선교를 위한 기관들이 여럿 있다. 중국에는 성경이 없다. 과거의 성경은 모택동의 문자개혁으로 인해 지금의 젊은이들이 볼 수가 없다. 때문에 새로 출판하는데 신약은 이미 출판했고 구약은 금년 말에 출판이 완료되면 들여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교회는 현재 북경에 외국인 전용으로 하나 밖에 없다. 그 외는 다 지하교회인데 가정에서 몰래 모이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나날히 부흥되어가고 있다 한다.

<정리: 오태용 집사>



선교계획과 전략

하 도 례 선교사

<고려신학대학 교수>

1. 선교계획

선교계획은 누가(한국교회)가 무엇을(해외에 복음을 들고) 어디에(땅끝까지) 언제(지금부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실행해야 할 것이다.

가. 가르치기 위한 선교 개념들

① 개 교회는 하나의 선교단체임을 인식하여 교회의 선교사업은 한 기관에 의해서만 되어져서는 안되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해야 할 것이다.

② 개 교인은 모두 선교사로서 내지나 외지 등 자기 소명에 따라 사명감을 작오하며 수행해야 할 것이다.

③ 선교사업을 위한 헌금과 기도는 교회와 교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의무이므로 부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나. 선교는 다른 사업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기관과 그 수준에 따라 퍼져야 한다.

① 지교회; 지교회는 교회예산의 많은 부분을 선교 사업을 위해 책정해 놓고 선교사업을 위한 끊임없는 지도의 캠페인과 선교사업을 촉진시키는 캠페인을 벌려 젊은 이들과 젊은 사역자들 중에 가능한 선교사 후보자들을 계속 찾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노회; 노회는 피선교지와 그 교단의 해외 선교회로부터 보고를 듣는 노회 해외선교회를 조직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③ 총회; 총회는 선교사 후보자들을 발굴, 심사하여 임명하고 피선교지 선정과 후보자들에게 개괄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피선교지에서 본국의 선교회의 선교방향과 승인에 부응하는 선교회 지부를 구성하는 등 영구적 해외 선교위원회를 구성·임명해야 할 것이다.

다. 지교회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

① 촉진; 선교주일일을 특히 해마다 정하여 강조하고 현지 선교사와 선교학 교수들을 강사로 한 특별집회를 갖고 교회 도서관에 해외 선교회와 연결하여 선교 진기에 대한 책을 비치하여 널리 읽도록 권장하고 다양한 선교단체들과 계속적으로 서신연락을 하여 관심을 갖는 피선교지에 대한 사전 지식과 자료 수집, 정리를 하고 전 교인들과 특히 젊은이들 중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자주 가지면서 관심을 갖게끔 해야 한다.

② 헌금;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진척되고 있는 헌금상황을 자주 통계내어 보고해야 한다.

③ 기도; 지교회의 모든 기관에서 혹은 단체나 개인적으로 가정예배와 개인기도 중에 꼭 기도하도록 권면해야 하며 특히 피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서 온 기도요청 편지는(prayer letters) 반드시 읽혀져야 한다.

④ 후보자 양성; 피선교지에 파송한 재능과 영력을 겸비한 남녀를 물색하여 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을 위해 피선교지를 위한 교육적 자료 수집과 필요한 책 등을 구입하여 본격적이며 구체적인

양성을 해야 한다.

2. 선교전략

선교전략은 위의 선교계획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되겠다. 먼저 한국의 해외선교의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해외선교는 한국 장로교회의 초창기에 시작이 되었으며 처음 10명의 안수 목사 중 3명이 해외선교사들이었다. 또한 이 선교사역은 일제하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으며 6·25동란의 복구후 선교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다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서 한국의 해외선교의 유리한 입장을 살펴 본다. 첫째 한국 교회는 크다는 사실이다.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종교단체의 성장보다 훨씬 빠른 성장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한국 교회는 부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도시교회는 매우 부요하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으니 선교할 수 있으며, 세째는 한국 교회의 교육체제와 문헌사업이 급속히 발달,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유리한 입장으로 보아, 우리는 지금이 바로 힘차고 과감하게 선교에 임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교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신학교가 많고 학생수 역시 매우 많다 외국 어디에도 이처럼 큰 신학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특히 선교사를 구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택하신 방법대로 지원자를 구하지 말고 성령의 택함을 받은 자를 구해야 하며 신학생·대학생도 좋으나 특히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내는 강한 사람을 택해야 하며 가장 넉넉한, 경험많은, 성공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 교수나 총회장을 지낸 수준급의 선교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선교에 관한 수많은 책들과 학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째는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활동적이며 영리한 국민으로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선교사들은 침략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 세계 선교의 진행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란 첫째 심각한 조직적인 문제들이 있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둘째는 파송된 선교사들이 정한때에 그들의 선교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세째는 선교사들은 단지 수년동안만 일한 뒤 그들의 임지를 떠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망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네째 선교사업의 개념이 분명치 못하다는 것이다. 한인교회를 시무하려 한 목회자들까지 선교사로 불려지고 있고 다섯째는 지금까지 파송된 선교사들이 대체로 집착하기 힘든 민족에게 가지 않고 새로운 선교사업의 방법을 개척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고제원 집사>



한국을 기다리는 선교지역

손 봉 호 박사

<종회신학 교수>

1. 오늘의 한국, 한국교회

먼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두가지 사명이 있다면, 하나는 창세기에 주어진 문화의 사명 즉 땅을 갈고 정복하는 것 두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인데 역시 두번째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별히 두번째 사명으로 한국이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것은 한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자.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조약을 맺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내실 때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한 형편에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훌륭한 백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할 때 구원받았고 또 가장 못났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백성이었기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선택 이유는?

또한 사 43:10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택하셨던 것이다(사 44:5, 44:8, 43:12).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여서 모든 열방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것은 향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기 위해서이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하셨단 말이다.

오늘날 한국이 굉장히 축복을 받고 있다. 일본사람들도 한국의 경제가 자란데 대해 겁을 내고 있고 미국도 별로 기분 좋게 생각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권위가 올라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한국이 축복받은 것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았다. 재작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수가 60만이 새로 늘어났는데 이는 200명씩 모이는 교회가 하루에 6개씩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한글을 제정케 하여 우리말 성경을 읽고 전도도 할 수 있게 해 주신 점과 한국이 식민지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지배하던 나라가 비기독교적 반기독교적인 식민지 정책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식민지 국가들과는 달리 기독교가 천주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람들에게는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을 수 없다.

선교의 요건 갖춘 한국

그리고 일본 식민지정책과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애국자들이 대개 교회에 들어와 독립운동을 한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식민지정책시대 세계에서 한국만이 예외란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세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면할수록 교회가 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현상이다. 좌우간 교회는 굉장히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가? 우리 민족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럴까? 우리 민족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야곱이다. 아마 세계에서 거짓말하는 경쟁을 하면 1등을 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는 날로 나빠지고 브라질과 남미에서도 한국이민을 안 받기로 작정을 했다. 한국은 거짓말 잘하는 나라이다.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인데 왜 축복하셨는가? 이런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여수론(곧은 자, 정직한 자)으로 만드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만족, 향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교단들이 너무 자기 만족에 빠져 약해지고 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보수파에서도 이대로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 관심을 쓰지 않으면 몰락하고 말 것이다.

선교는 시대적 사명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주신 것은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나는 한국 역사상 한국이 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세계역사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민족, 문화적으로도 보잘 것 없는 민족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세계 전체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업밖에 없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국이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줄 믿는다. 즉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바톤을 받아 선교를 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네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란 것이다. 한국교회가 복음주의요 보수주의요 개혁주의라는 사실이 얼마나 선교의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이다. 때문에 훈련을 많이 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시면 보통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은 세계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이다. 우리 경제의 70%가 해외에 의존

해 있다. 이것은 어차피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구밀도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외국과 관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갈 기회를 준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선교의 기회이기도 하다.

2. 선교의 대상

한국을 부르는 선교지역은 어떤가? 물론 당끝까지이며 어느 나라나 다 한국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까운 데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아시아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아시아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다.

통계를 보면 아시아는 세계인구의 61%를 차지하는 26억이며 그 중 기독교인수는 2%(그중 천주교가 1% 신교가 1%)이다. 다른 대륙과 비교해 보면 기독교인수가 남미는 전인구의 88% 북미가 62% 유럽 88% 아프리카 29% 대양주 80% 소련이 28%이다. 비교가 안되며 아시아 때문에 세계인구의 기독교인 수는 30%밖에 안된다. 아시아가 빠지면 50% 이상은 될 것이다. 바로 아시아가 가장 큰 대륙이고 인구의 반이상이 사는 데도 기독교인수는 2%밖에 안되니 당연히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통계를 보면 아시아가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1972년 통계를 보면 일본을 제외한 평균 개인당소득(G.N.P)이 80\$ 미만이었는 데 아프리카는 100\$ 이상이었다. 세계평균이 180\$이었기에 세계평균의 반도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진국을 보면 유럽은 2,400\$ 미국은 5,515\$ 이었다.

기독교인 2%뿐인 아시아

얼마나 아시아가 비참한가를 알려 주는 통계이다. 이처럼 가장 비참한 가장 비기독교적인 가장 어려운 형편인 아시아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 선교사는 어떠한가? 1972년에 미국에서 아시아에 선교사로 30%인 8,700명을 보내고 있다(남미에는 34% 파송) 영국에서는 아시아에 1,566명을 보내고 있다(아프리카에 선교사수의 42% 파송). 그러니까, 아시아에 파송된 선교사의 수라는 것은 매우 적은 것이다. 제3세계에서 아시아에 보낸 선교사수는 1,126명으로 전체의 33%에 해당된 수라고 보면 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역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로 보아 우리의 선교지역은 무엇보다도 아시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선교파송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살펴보면 선교사 파송 불가능지는 베트남, 북한, 몽고, 중공, 티베트,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며, 이슬람교국이기 때문에 불가능지는 중동국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이며 파키스탄도 힘들며 말레시아도 들어간 선교사도 내보내고 있으나 선교사 이름으로 보다 기술자로 들어가면 될 것이다. 약간 이슬람교국으로 가능지는 인도네시아이며, 이란이 앞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나라이며 불교 때문에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한 나라는 버마, 부탄, 스리랑카, 태국이며 정치적 이유때문인 나라는 일본, 싱가포르이다. 한국 선교사가 갈 수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네팔(기술자의 이름으로), 말레시아(기술자), 파키스탄(기술자, 교수), 부루나이, 대만, 홍콩, 일본(의사, 기술자) 벵글라데시 등의 나라이다. 여기서 몇

나라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자.

□ 벵글라데시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쳐서 동파키스탄이 벵글라데시가 됐다. 인구가 7,500만명, 면적이 36만 9천 8백km²로서 인구밀도가 세계 제1위(460명/km²), 매년 3.1%의 인구증가율을 갖고 있는 영원한 기근의 나라이다. 매년 2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며 국민소득도 100\$에(77년 통계) 지나지 않고, 국민의 85%가 회교도, 14%가 힌두교, 기독교·불교가 1%로 기독교인수는 20만명이다(신교인 전체 국민의 0.06%), 정부에서는 자기 나라가 회교국가는 아니라 하여 법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기독교인이 되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이곳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법은 성경통신학교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글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교의 첩경은 글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이므로 앞으로 보내야 할 나라이다.

□ 태 국

인구가 4,000만명이며 94%가 불교도, 중국인이 12~14%(경제의 90%주도) 있으며, 천주교는 4세기 전부터 들어왔으나 신교인은 0.1%, 구교는 0.4%이며 현재는 기독교 병원 학교가 있다. 이 나라에서의 선교는 문서전도, 라디오전도, 신학교수 선교가 가장 바람직하며 똑똑한 신학자가 들어가 신학생을 키워야 하는 나라이다.

□ 대 만

인구 1,500만명으로 85%가 글을 해독하며 94%가 중국어 전통적 미션을 믿고 행하며 기독교인은 4%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한국선교사는 합동측에서 1명(대만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 고신측에서 2명(대만사람을 상대) 파송되어 일하고 있으나 민족의 우월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네 팔

인구 400만명으로 힌두교 국가이다. 개종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으면 3~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여야 한다. 그후는 교회를 다녀도 좋으며 세례준 복사는 3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이 나라 선교를 위해서는 국경지역의 다즈니(인도영토)라는 도시에 가서 활동할 수 있다. 인도 영토이니 아직까지 선교는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선교사를 보낼 때는 첫째 선교사는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충분한 계획을 하여 준비를 많이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언어, 풍습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며, 세례는 선교회는 항상 한 분이 책임이 지도를 했으면 좋겠으며 비례는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뿐 아니라 기술을 겸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 고재원 집사>

<13면에서>

- ㉔ 타교단 및 교단에 대한 편견
- ㉕ 보편적 세계사 무의미하게 봄, 역사 의식 결여와 제도적 정체성
- ㉖ 선교신학연구 결여와 계획수립의 과학성 결여, 선교자양성기구의 부재
- ㉗ 선교의식 결여와 자기 교회 위주 사교방식

<정리: 이형수 집사>



선교신학 연구, 선교사양성이 필요

김 영 한 박사

<대학부 부지도 · 송전대 교목실장>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혼자만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교회라는 입장이 되었다. 오늘날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한국의 해외선교사가 그 좋은 예이다. 따라서 이 세계선교에 대하여 세계교회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봄에 그와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제문제 특히 선교신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제 교회의 선교문제 상황 고찰

오늘날의 세계선교는 선교가 어떠한 상황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큰 2개의 사상이 있다. 곧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복음주의 선교(Missio Christi)와의 대립현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가. 복음주의 선교(Missio Christi)

이는 17세기 Voetius(화란 신학자)의 선교의 목적 즉 ① 이방인의 개종 ② 교회의 설립 ③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과 John Stott의 ①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대한 깊은 인식 ② 복음 능력에 대한 확신 ③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주 ④ 복음전파의 시급성 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체험의 강조라는 주장에서 우리가 살펴 볼 수 있다.

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이는 1952년 독일의 뮐링톤에서 있었던 선교대회에서 나온 새로운 선교개념으로 W.C.C.(세계 교회 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 특징은,

① 세속주의(Secularism)

이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사회정의, 인권, 인종, 교육, 인간복지, 기근문제해결 등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세계주의(Cosmopolitanism)

세계를 한 가족으로 형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한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제문제, 자연의 황폐 등 구조악을 제거하고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여 세계 인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혼합종교주의(Syncretism)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그 부활의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이 혼합종교주의의 발전은

- 1961년 뉴델리의 W.C.C.대회 : "우주적 그리스도", "익명의 그리스도"
- 1973년 방콕의 W.C.C.대회 : "아프리카 문화 긍정, 인도의 종교적 전통을 보급하자"
- 1975년 나이로비의 W.C.C.대회 : 대회 기간중 혼합종교적 특성에 따라 실제로 행함.

2. N.C.C. 적 선교신학과 보수교회적 선교신학

한국교회 선교의 제문제를 토의하는데 이와같은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런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서 이미 서구에서 토의되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 N.C.C.적 선교신학

W.C.C.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협의회(N.C.C.)의 선교신학은 W.C.C.적 선교신학을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세속주의적 경향

㉠ 교회는 개인구원과 확장을 유일한 의무로 삼아서는 안된다.

㉡ 살름(평화)을 사회학적 화해와 해방의 의미로 해석

② 선교의 내용과 방향

㉢ 선교하는 교회의 구조는 세상이 요청하는 대로

㉣ 세상에 사회정의 및 인간화 실현

㉤ 사회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③ N.C.C. 선교대회 주제강사 변선환 교수의 강연(1976. 11. 오늘날의 선교와 그리스도인의 자유 중에서)복음은 개인을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세속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

나. 보수교회적 선교신학

우리교회를 포함한 보수적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의 특징을 1975. 8.28-9.1에 서울에서 인도, 싱가포르, 화란, 한국대표와 내국선교사대표들이 모인 아시아 선교연합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서울선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역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W.C.C.적 선교신학을 배격하고 기독교선교의 본질적, 근본적 과업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성경에 입각한 선교신학을 새롭게 천명하고 있다.

다. 문제점

① N.C.C.적 선교신학의 문제점

㉠ 개인구원 무시, 인간화(사회구원)가 선교

㉡ 교회는 사회구원을 시도하는 문화기구

㉢ 종교혼합주의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유일 종교로 보지 않는다.

㉣ 살름(평화)을 인본적, 사회적 측면에서 실현

㉤ 교회성장 무관심

㉥ 외지선교 무관심

② 보수교회 선교의 문제점

㉦ 개인구원에 치중, 사회정의 및 구원 무관심

㉧ 교회를 단지 종교적 예식적 센터에서만 이해, 사회문제 해결에 연구와 행동이 결여

<12면에 계속>

본부 급의화시 교강선한

홍 중 만 목사

<홍중주제 선교사>

우리교회 역사가 25년, 해외선교 역사 10년의 연륜을 볼 때 오늘날 우리교회의 선교활동상황은 놀라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아닌 서구나 미국 그밖에 다른나라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깜짝 놀랄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지나온 10년간 선교활동을 반성해 보고 앞으로 충현교회 선교활동의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효과적 선교의 요건

가. 사명감이 투철해야 한다.

이는 보낼 사람(선교사)나 보내는 사람(후원자)가 똑같이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마치 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과 후방에서 지원하는 국민과의 관계와도 같다. 그 사명은 단순한 감정이나 도움이 아니고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는 선교적 사명인 것이다.

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돈없는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즉 자원이 필요하다. 정해진 어느 분량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전략이 필요하다

선교는 하나의 전쟁이기에 전략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각개 병사의 우수한 전투기술도 필요하지만 지휘관의 훌륭한 전략이 승패를 결정한다. 전략없는 선교란 생각할 수 없다. 장·단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우리 선교활동의 회고

상기한 바와 같은 효과적 선교의 요원들을 놓고 지나온 10년간의 우리 선교활동을 회고해 보자.

첫째 사명에 있어서는 10년전 선교를 시작할 때는 온 교회가 통일된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에 목사님을 위시한 몇몇 선교에 사명을 가진 장로님, 청년들이 힘을 내서 출발했던 것이다.

둘째로 재정의 문제, 곧 자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는 많은 자원이 매장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저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세째로 전략적인 면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교회 선교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아니었느냐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전략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좋은 사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의 길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객관적인 면에서 살펴 볼 때 전연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매우 약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선교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5년의 교회역사, 10년의 선교활동으로 얻은 오늘날의 수확은 매우 큰 결실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사명감에 불 탄 사람들이 마치 육탄돌격이라도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많은 시행착오를 인정하자.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우리 충현교회 선교 활동이 정립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3. 앞으로의 전망 및 제시

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해외선교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나오고 그에 의해 실행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 교회 여건에 맞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나. 지역선정의 중요성

앞으로 우리 선교에 있어서 지역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한곳에 집중지원을 하느냐 몇 곳으로 나누어 가느냐 등의 문제, 한곳에 2명이 좋으냐 등으로 어제 손봉호 박사의 특강에서도 나왔지만 한 곳에 최소한 2명을 파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홍콩에 있는 외국인선교부들은 한나라에서 2-3개 선교단체, 한 선교단체에 2-3가정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선교협력관계

은 교회가 다 협력해야 한다. 개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가 협력해야 하며 또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선교단체, 선교기관과 협력을 해야 한다. 우리와 신학사상을 달리하는 선교단체들은 비교적 자기들끼리 협력이 잘 이루어 지는데 소위 보수진영의 단체들은 잘 협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라. 선교사 양성문제

현재 우리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 정식선교사-신학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고-도 좋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 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식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정식 선교사들도 출국명령을 받고 있는 곳들도 있다. 그러기에 기술을 가진,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의사, 교수, 기술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선교사를 양성해야만이 아시아지역 선교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현지인을 양성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

마. 선교본부 강화의 문제

선교본부가 강화되지 않으면 일선의 선교사가 제대로 일할 수 없다. 전략 수립지시, 통제, 감독 등이 일원화되고 계획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후원자들에게 공보, 교육이나 재정지원 등은 모두 선교본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홍콩선교부의 의의와 그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중공을 겨냥한 중공 선교사양성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충현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점차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중공의 변화를 볼 때 이 중공선교를 통해 북한선교까지도 연결할 수 있기에 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보인다.

<정리: 이형수 집사>



2억여의 장학기본금 확보해야

정 기 성 목사

<전도위원회 지도>

우리의 선교활동을 회고하면서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문제점 등을 우리는 뼈아프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선교사 양성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교회 선교활동을 선교초창기의 발전과정이라고 생각되기에 용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0년의 역사를 가졌고 따라서 반복되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선교사 양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1.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의 위치

선교의 사역은 성령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 사역을 위하여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행 13:2, 롬 10:14, 15) 즉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선교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선교사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지상과 업으로 주신 것이다 (마 28:19).

선교는 보내는 사람(회원) 보내짐을 받는 사람(피선교자)의 조화된 일치점을 가질 때 그 선교는 성공적으로 이끌어진다. 그 중에서도 선교사의 위치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선교의 승, 패여부가 선교사에게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2. 바람직한 선교사상(목표)

선교사의 사명감만 있다고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선교사상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가. 선교사의 신앙적 자질

- 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 ②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확신
- ③ 구원의 확신
- ④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

나. 선교사의 소명감을 가진 자

다. 선교사로서 적당한 인격 소지자

겸손, 인내, 충성, 관용, 무이기심, 협동심, 창의성 명량한 마음의 소지자를 말한다.

라. 육체적 결함이 없는 자

마. 외지사업을 처리할 능력을 가진 자.

3. 우리교회가 원하는 선교사 후보자 양성문제

가. 땅끝까지회

선교사 양성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한 사람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 체제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고 어학이나 선교사가 가져야 할 자세들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어려서부터 결신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겠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다.

이를 위하여 1975년 해외복음선교회 산하에 땅끝까지회를 조직하였다. 이 땅끝까지회로 대학생 청년을 정회원, 중·고등학생을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을 구성하고 선교연구분과와 선교추진분과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주요업무는 성경공부, 기도회, 수련회를 통한 회원 신앙훈련, 국내의 선교단체와 결연하여 선교에 관한 정보, 자료조사, 특별지역연구, 각종 선교문제 연구발표 등을 하는 선교연구업무, 중고등학생부터 중점교육케 될 어학훈련(예정) 및 우리 교회 해외선교사업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고 있다.

나. 선교사 후보자 발굴

땅끝까지회를 통해 중·고등학생시부터 결신한 학생들이 대학 졸업할 시까지 그 사명감이 계속될 시 교회 장학회심사를 거쳐 신학교육을 시키고 별도 계획에 의한 훈련으로 선교사로 쓰임받게 한다.

다. 평신도선교사 발굴과 훈련

일반행사를 통해 우리교회 교인 중 평신도선교사 지망 또는 편면에 의해 평신도선교사를 선정한다. 훈련은 성경학원 내에 단기 훈련소를 설치(예정)하여 시켰으면 한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정식 선교사보다 적임을 가진 평신도선교사의 활동범위가 용이함에 비추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양성코자 한다.

라. 선교현지인 초청훈련

아시아지역의 정치, 사회적 불안은 늘 안고 있는 곳에서 선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또한 저개발국마다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여 제 3국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기에 자국민으로 자국민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타국민을 불러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 우리 선교사산하에 두어 관리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인 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4. 몇가지 제안들

상기한 계획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 선교사 양성을 위한 장학회 확장

장학회 확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임원이 구성되고 장학금의 확보가 필요하다. 최소한 2억원의 장학기본금을 확보하여 1년에 3천만원정도의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어야 외국유학, 선교사 전지훈련, 국내의 신학생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나. 선교센터 건립

우리 새성전의 건축에 관한 것이지만 선교센터에서 모든 정보, 자료 등을 비치하고 언제든지 와서 활용하고 배울 수 있으며 이 선교센터 안에는 어학훈련센터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어학훈련센터

서울 시내에 어느 훈련기관보다도 훌륭한 어학훈련센터가 세워져 외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어학훈련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라. 평신도선교사, 외국학생을 위한 구체적 훈련 계획 작성.

<성리 : 이명수 집사>

눈에 보이는 기도원이 되기까지

최 환 집사

<건축위원회 건축기사>

.....은 교인들의 기도의 결정체가 눈에 보이는 웅장함으로 이루어지기까지 1년 6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간의 어려움과 기도원이 되기까지의 산역사를 그동안의 실무자에게서 들어본다.<편집자>.....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성산의 기도원을 이렇게 짓게 하셨다. 다윗은 그가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도 자기가 바라고 계획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솔로몬왕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충현의 성도들께서는 저 충성되고 자기 힘을 누우친 후의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보다도 더 행복하게도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깊이 느낄 것이다.

기도원을 완공하면서 이때까지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자 보자.

샘물나는 깊숙한 땅공발에

기도원의 대지를 물색하고자, 처음에 김천준장로님, 건축위원장김기정장로님, 한명옥장로님, 윤종성장로님과 같이 75년도 초여름 광주군 대생령리 교회묘지가 있는 후면쪽을 1차 대지로 선정, 2차 대지는 현 판리인이 살고있는 밭과 구농진 곳을 측량기(당시 오산학교)를 빌려서 측량도 했으나, 첫째 선정된 대지는 양계장의 뒷산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악취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고, 둘째 선정된 대지는 측량 결과 대지로 환원할 수 있는 땅이 불과 500평 내외이어서, 너무 협소했다. 그다음 다시 시간을 내어서, 건축위원장 김기정장로님, 김천준장로님, 심인경집사님과 같이 4만평이 넘는 산을 살살이 답사한 결과 양지바르고, 아랫쪽은 1개의 샘물도 나는 깊숙한 땅꽃밭이 있었다. 심집사님이 이곳이 제일 좋겠읍니다 하여 건축위원장 김기정장로님, 김천준장로님, 다같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두고 돌아왔다. 다음에 최종으로,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김기정장로님과 같이 겨울(1976. 1)에 답사하여 이만하면 됐다고 결심을 하였다. 그후 1976년 봄부터 터를 닦을 계획, 건축할 계획을 했다. 그해 여름부터 건축의 규모, 건축비 예산을 세워서 계획 완료후 광주군청에 토목공사 허가를 (2,448평 대지) 받아 공사기공에 임하게 되었다.

산골짜기에 하나님의 전(殿)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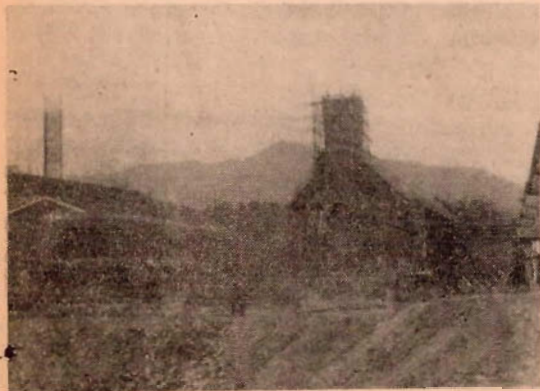
짓는 소리 메아리쳐

1976년 12월 6일 기공예배를 보고 대망의 공사 작업을 하여 불도저를 들이대고 산을 깎고 평지를 만들기 시작하여 조용하던 산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소리가 메아리쳐 퍼졌다. 겨울에 착공한 것이라 많은 문젯점들이 있었으나, 그런 대로 행정상의 대지 준공 마무리를 보고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이었다.

1977년 3월에 건물배치를 하려고 기준틀을 설치하고자 하니 그래도 대지의 정지가 부족하여 낮은 곳은 깊이 파고 좁은 곳은 넓혀 가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도면의 배치도와 세부도면의 전면수정을 하고 종합계획을 건축위원회가 주관하면서 차츰차츰 윤곽이 들어났다. 기도원본당은 지하 1층(기도실) 100평 예배실 1,2층으로 합계 230평을 계획하고 숙소는 남·녀 별동으로 1,2층에는 수세식변소와 샤워실, 작은 방은 성인 3인이상 큰 방은 8인이상 합숙할 수 있는 시설로 남·녀 각각 135평씩이며 식당은 98평 이상이고(주방포함) 1층에는 20평이상의 다목적실 20평이상의 남·녀 종합샤워실(11평씩)을 두었으며 17평의 판리교역자 숙소로 종합계획을 하고 목사관은 2층으로 1층은 장로님들 방과 2층은 교역자님들 방으로 온수난방시설을 하고 면적은 52평이다. 종합화장실은 15평으로 수세식으로 두었고 기도원 전체면적은 약 780평정도이다

기도의 능력이 이곳에서

건축계획을 완전히 마쳤으나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 측에서 공사지연을 시키면서 성실성이 없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1977년 4월 5일까지 완성할 것을 최후로 독촉하였으나 4월 말일이 지나도록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과 건축위원들은 열심히 기도하였다. 큰일을 하는 데는 크고 작은 시험이 오지만 끝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아니 이루어 주시는 일이 없는 것이다. 건축위원회에서는 토목공사하는 회사에서 일을 담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5월 24일 덕화공영이란 알찬 건축회사를 선정하여 마침내 건축계약을 하고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건축회사의 사장이나 현장소장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편리



하고 임의로였다. 자갈과 모래를 현장에 나르고 본당 지하실 기초 작업을 하고 있을때 토목회사의 인부들은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난동까지 벌이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공사를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6월 10일부터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녹음이 우거지고 산이나 들에는 참으로 공기가 맑았다. 기도원터로는 참 잘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본당 지하실에서 향긋한 향기 감돌아

콘크리트를 비벼서 냉느라고 발동기는 조용한 사방을 진동하고 인부들은 땀을 흘리면서 작업을 계속하였고 본당 지하실 주위에서는 어디서 퍼져나는 향기인지 온통 향긋한 향기로 주위를 감싸 돌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이다. 모든 사람들은 피로해 보이지 않았다.

7월 15일 여자기숙사 1층 스라브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중 11시 권사회임원 여러분께서 인부들의 점심 식사를 마련해 가지고 오셨다. 이날 예배인도에 김종택 목사께서는 시편 127편 :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7월 26일 본당 1층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중 건축위원 일동이 현장을 방문하셨다. 7월의 태양은 매우 뜨거웠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믹서는 고장이 자주 났다.

사고도 아멘으로

날씨는 더 더워지는 것 같았고 일의 진척은 늦어지는 것 같았다. 목사관부터 벽돌을 쌓기 시작하였다. 여자 기숙사 최상부 콘크리트치기 준비를 하는데 다리를 헛터더 실수로 인하여 인부 한 사람이 2층 옥상 부분에서 2층 바닥으로 30~40kg이 넘는 판넬을 안고 떨어졌다. 다리나 목이 안부러졌을까 하는 의심이 생겼다. 급히 지프차를 태워 서울중앙의료원에 입원시켜 검진한 결과 그다지 중상은 아니었다. 매우 다행이었다. 목의 뼈가 상했기 때문에 퇴원후 1개월을 현장의 막사에서 쉬었다. 집에서 그것을 알면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면을 철저히 정리·정돈하고 부주의하는 것을 막겠끔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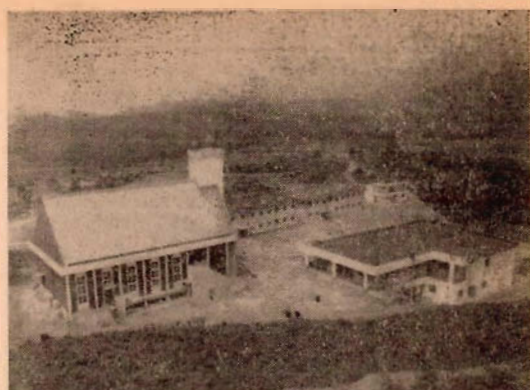
현장에 방문한 사람은 여전도회에서도 산업전도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방문하였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원을 크게 짓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일꾼을 키우기에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와서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어떤 성도는 기도원을 너무 크게 너무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좀 서운하였다. 왜냐하면 건축하는 실무자들은 우리 교인수에 비하면 기숙사가 너무 적다고……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거의 많은 성도들이) 건물은 저만하면 됐는데 개인이 비밀 회개기도 하는데 기도굴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거의 전부였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들이다.

성도들의 관심에 감사

8월경에는 씨멘트의 파동으로 공급이 부진해 저서 다소 지장을 가져 왔으나 무사히 해결이 되어 갔고 비가 올 때에는 현장 지형상 전혀 운반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9월 27일의 추석명절이 지난 후 인건비가 전국적으



로 경증 뛰었고 부분공사인 벽돌공, 목공, 미장공들은 주석이 며칠이 지나도록 현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벽돌공들은 인건비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공사중단하고 판곳으로 아주 가버렸다. 이런 일 때문에 공사는 부진해지기 시작했고 공사지연의 원인이 되었다.

건축 실무진들은 청부회사측에 수습대책을 논의하였고 청부회사측에서는 벽돌쌓기 비용을 배(倍)로 올려주고 벽돌공사를 진행하였고 목수나, 미장, 그밖의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를 30%~50%씩 올려 주면서 공사 진행을 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잠깐동안에 5개월이 지났다. 공사의 진행을 계속했고 어떤 때는 건축재료비가 부족하여 건축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는 동분서주하며 개인적으로 몇몇 성도들에게 부탁도 하며 공사를 진행하여 나갔다.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기도하며 일을 함에는 못 이루는 일이 없었다.

11월 15일까지는 도저히 완공할 가망이 없었다. 11월 9일 첫 여름이 열기 시작했다. 남전도회에서 방문하셨다. 본당 철골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념으로 일금 10만원을 청부회사 현장 소장에게 수고비로 주었고 회사측에서는 고급 타일을 사서 인부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건축위원장께서는 금년에는 일기가 일찌기 추워질 것 같으니 11월 30일까지 공사중단할 것을 지시하시며 물을 쓰지 않는 공사(즉 목공사등)를 계속하며 침착하게 꼼꼼히 공사진행하라고 지시하셨다.

할렐루야! 물이다

78년 3월 15일부터 공사는 다시 시작하였다. 공사는 열심히 진행되어 걱정은 없었으나 우물물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100톤의 물탱크를 미리 완성하고 이 큰 물탱크를 채울 물이 큰 걱정이었다. 미리 완성된 우물에서는 1일 약 20톤(100드립정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것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부족할 것 같았다. 그 아랫쪽에 약 20자이상 땅을 팠으나 1일 약 10드립 정도가 나왔으나 그것으로도 부족이었다. 큰 걱정을 하며 5월 8일부터 다시 파기 시작했다. 약 10자정도 파고 들어갔을 때 샘물이 터져서 물이 출출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렐루야! 건물을 거의 완성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안타까운 물이 터져나올 때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니 해결하시는 일이 없구나!” 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제 논현동 새성전건축을 앞에 둔 우리들은 눈물로써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머지않은 앞날에 아름답고 큰 성전도 꼭 주실 것을 믿습니다.

1700자 가량

5월을 보내면서

이 형 수

가정의 달이요, 청소년의 달이요 하고 자랑한 표어를 내걸고 행사를 하고 강연을 하고 하던 5월이 다 갔다. 교회에서도 어린이주일, 아버지·스승의 주일 등으로 지켜며 행사를 가졌고 한편 경로회를 열어 70세 이상 되신 교회의 어른들에게 하루나마 교회의 젊은이들이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뜻깊은 일도 있었다.

또한 지난 5월 24-27일 간에는 한국 청소년전도협회가 주관한 청소년초청전도대회가 중원교회당에서 모여 연일 입주의 여지없이 교회당을 메운 가운데 열렸었다. 협회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연접회 참석인원이 6,683명, 그중 새로 믿기로 결심한 자가 246명, 평생을 주께 헌신키로 작성한 자가 98명 등이었다고 한다.

갈수록 더해가는 청소년의 범죄, 비행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회, 학교, 가정에 이 문제를 타개하려는 노력에 비례라도 하는 듯 청소년들의 범죄, 비행은 방법, 규모면에서 점점 더해 가고 있다. 청소년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당면문제로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방지, 해결하려는 별 효과없는 노력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은 아마도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누구나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일 학생들로 꽂 메운 급변 청소년 전도집회를 보면서 학부모나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면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도대체 저들이 뭘때문에 이처럼 모여드는가? 무엇이 저들에게 매력을 주는가? 무엇이 저들로 그렇게 열심있게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가?

무엇이 생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학생들로 예수님께 결심토록 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그래서 주님께로 향해진 뜨거운 열정이었던 것이다.

청소년들의 범죄, 비행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보다 더 크고 가치있는 것으로 그들의 관심을 대치시킬 수 있는 무엇—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줄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안심하지 말자. 그들이 예수께로 향한 열정을 가지지 않았다면 교회밖에 있는 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찬송가 감상 ⑤

하늘에 찬송소리 나던 그날

(새 182, 합 134)

김 중 석 전도사

<게이성가대 지휘>

하늘에 찬송소리 나던 그 날
죄악이 환영하였던 그 날

나는 이 악보를 보자마자 그 시(詩)의 간절하면서도 집약적인 내용과 그 악곡의 힘찬데에 단박 이 곡이 좋아지게 되었다. 이 곡은 첫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2절에 고난 그다음 부활을 노래하며 마지막에는 다시오실 주님을 노래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역전체를 한편의 시로 요약하고 있다. 후렴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런 시를 보고 있노라면 눈에 보듯이 환히 그리스도의 행적이 떠오르는 듯하다.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물려서 내 죄 담당하시고
부활로 영원히 날 구한 예수
다시 오시네 영광의 그 날

음악은 4분의 9박자로서 3박자 계통인데 따라서 흥겨운 감흥을 갖게 되어있다. 춤을 추듯이 신나게 부르는 찬송은 구원의 확신과 영광의 그 날을 바라는 소망의 성도에게 있어 어울리는 정경이다 하겠다. 우리는 예배에서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점잖게 찬송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찬송이란 감정을 억제하며 무표정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시(詩)로 표현된 신앙의 고백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공명되어 자신의 간절하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날 때 감정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때 순진하게 감정을 나타내 부르는 찬송을 더욱 기뻐하실 것임에 틀림없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 때 기쁜 나머지 예복차림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며, 이런 다윗의 감정 표현을 흥분·사람을 떨주셨던 사실을 구약에서 읽는다.

이 찬송시를 지은 찰맨(Chapman, J. Wilbur D.D. 1859-1918) 목사는 미국사람이며 장로교 총회장까지 지낸 목사로서, 목회자일 뿐 아니라 유명한 전도자로서 전 미국에 걸쳐 많은 부흥집회를 인도하였다.

찰맨 목사가 인디애나(Indiana)의 위노나(Winona)에서 사경회를 가졌을 때(1908년경 여름) 오르간 연주자로서 마쉬(Charles H. Marsh)를 초청하였다. 이때 찰맨 목사는 두개의 시(詩)를 마쉬에게 주어 작곡토록 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하늘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날"이라는 바로 이 곡이다. 그러니까 이 곡은 부흥사경회에서 생겨난 복음송가이다. 세계를 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강령히 느끼는 이 때에 우리는 보다 힘차며 희망적인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었으면 한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5월중 구입도서

1) 사전류

고사성어사전/학원사전.

2) 기타

크리스찬라이프 합본 전10권/크리스찬라이프사간

이달의 기증도서

1) 설교집

오늘의 만나/조용기 저, 영산출판사(박선희 선생 기증)

2) 교육학

카운슬링의 원리/정원식·박성수 공저 교학도서주식회사간(박성수 집사 기증)

3) 논문집(석사학위)

① 景觀構成에 있어서 要素의 意味와 그 設計技法에 관한 연구/고제원저 1977 (고제원집사 기증)

② 學校環境과 人性과의 關係/이준교 저 1972(이준교 전도사 기증)

③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LAW ON PRICE STABILIZATION AND FAIR TRADE/장주영 저 1976. (장주영 선생 기증).

4) 양서기증(성경)

① ALKITAB Lambaga Alkitab Indonesia Jakarta 1975 (서만수 선교사 기증)

② PERJANJIAN BARU/Korea Mission in Indonesia 1975 (서만수 선교사 기증)

이달에 정리된 도서

● 앞으로 도서실에서는 이제까지 나온 기독교계의 모든 잡지를 구입하여 합본 비치해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기독교계 잡지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기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 계속해서 논문집(석사 및 박사학위) 월간지(1978년 이전에 출간된) 및 고서류(1950년<단기4283년> 이전에 출간된 모든 도서)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도서실 열람통계 및 보유장서

1973.9~1978.4 현재

구분	교역자	학 생	교 사	일 반	기 타	계	보 유 장 서
년도							
1973		207	68	164	11	450	963
1974		706	231	768	114	1,819	1,161
1975	30	314	323	940	207	1,814	1,519
1976	229	1,680	709	749	443	3,810	2,004
1977	265	3,003	1,110	1,441	200	6,319	2,666
1978	77	1,527	299	607	74	2,584	3,131
총계	601	7,437	2,740	4,969	1,049	16,796	3,131
도서열람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일 오전 8시 30분—저녁예배 15분전까지 도서실안내: 도서대출/폐관 1시간전까지(단 교사에 한함)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
 ...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
 ...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슬픔...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
 ...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탬...
 ...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서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가자는 의...
 ...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같이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충현」 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도날드·M·베일리 저

그리스도론

오늘날의 기독교의 신학 사조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신학사상은 '역사적 예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신학운동과 완전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보수신앙을 지키는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현대신학의 흐름의 핵심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신앙과 신학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현대신학이 법하고 있는 학문적인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고 있는 이 책을 읽을 기회를 갖도록 권하고 싶다.

이 책에는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루돌프 볼트만, 칼 하임과 같은 신학자들과의 논쟁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왜! 무엇이! 어느 관점에서 현대신학이 성경으로부터 '역사적 예수운동'이라는 것과 달리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재현하려는 관심을 상실했는가를 이 책은 지적한다.

그리스도론의 양식비판과 비신화와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다루고 있는 이 책을 기독교의 신앙질서 확립을 바라는 사려깊은 지성적인 성도들에게 권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신학의 무질서와 신앙과 생활의 이원적인 면에서 불신자들에게 영적 생활의 위대한 힘을 보여 주지 못하는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진다면 먼저 성경에 기준한 신앙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싶다.

김경성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편 38 : 13

귀먹은 자같이 병어리같이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들지 아니하고 병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돈이 많을 때에는 친구도 많고 벼슬이 높을 때에는 찾아 나오는 친척도 많더니 몸에 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를 당했을 때 친구는 멀리 서며 오히려 까닭없는 조롱을 하며 위협을 할 때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귀머거리 노릇을 하고 병어리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원망이 없는 태도요 하나님과만 의논을 하고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는 줄 알고 귀머거리가 되고 병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너그러운 사람, 낙심이 없는 사람, 참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참 일꾼은 남의 말에 마음이 끌리지 않고 자기 변명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시편 39 : 1, 2

입에 자갈을 먹이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피치 아니 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변명하고 저주하고 책망하지 않고 내 입에 자갈을 먹이기로 결심하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므로 나는 달게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저주를 면하는 방법은 답변하는데 있지 않고 자신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 밖에 없는 줄 알아서 대답하지 않기로 하였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여 나아가는 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원수가 깃박의 칼을 뽑고 사자같이 덤빌 때에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양치릴 온유하게 죽어야 하고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를 괴릴 때에는 성령의 겹으로 여지없이 싸워 무찔러야 하고 음해의 골짜기에 다다를 때에는 귀머거리, 병어리가 되어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니

다. 말할 줄 알면서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야 이깁니다. 제일 힘든 일입니다. 침묵은 크신 은혜를 받아 큰 일꾼이 된 후에 감당하는 가장 귀한 덕입니다. 사람은 즐거우면 과장하여 자랑하고 힘이 들면 사람에게 호소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즐거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울 때에 사람 앞에는 입을 봉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즐거울 때에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억울한 때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경솔하게 말하다간 실수하여 범피하게 되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알아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기탄없이 의논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시편 39 : 3-6

인 생 무 상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려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수명이 길지 못한 사실과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사람이 흔히 범피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지상에서 천년, 만년이나 살 것 같아서 함부로 범피를 합니다. 참지만 세상에 머무르는 나그네인 줄 알았다면 그다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을 행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남들은 다 죽어도 자기는 장생불사할 것만 같아서 범피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수명이 짧은 것을 잊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할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기의 연약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 방종, 경솔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와 스승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만 위대한 줄 알다가 필경 회복 못할 비참에 빠지게 됩니다. 권세가 높아지고 돈이 모이고 영광을 누리게 될 때에 교만, 방종하여지면 멸망은 곧 나를 방문합니다. 이 멸망은 거짓말 피난처를 쉽게 무너뜨리고 장관의 세력을 쉽게 꺾고 근심, 부끄러움, 고생, 죽음을 가지고 내 집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일에 시간, 건강, 지식, 기술 전부를 기울여 바쁘고 애쓰고 발악하는 정신빠진 인생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생명 부르시면 쌓아 놓은 재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감사헌금 한번 마음껏 못해보고 주께도 못해보고 바들바들 떨던 재물, 남의 눈물을 짜고 등가죽을 벗기어 모든 재물이 필경은 누구를 위하여 쌓은 것인가?

이 원고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강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만물을 거저 주신 하나님

이 성 근 목사

<출판위원회 지도>

참 이 세상은 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값이 없는데 오히려 아무 필요없는 사치한 물건이나 혹은 해로운 물건은 많은 값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꾸민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답고 부요한 장막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것은 낱알이 다 예비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다하여 얻으려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먼저 먹기 위하여는 곡식, 과일, 채소 고기들이 그 수를 알 수 없도록 산해진미가 갖추어져 있으며 입기 위해서는 솜, 베, 비단, 털, 화학섬유, 유리섬유 등 각기 기후에 맞도록 넉넉히 예비하였으므로 그밖에 쫓겨 되어 눈을 즐겁게 하고 별태가 울고 새가 노래하여 귀를 즐겁게 합니다.

참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큰 창고입니다. 우리는 이 창고에서 거두어 먹고 입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식물이 되리라』(창 1:29),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찌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창 9:3),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시 145:15, 16)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애써 모은 내 돈으로 사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신세진 것은 없다. 이 도미도 내가 2천원을 주고 사온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준 것은 아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고기를 거저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담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저 주지 않았어! 2천원이란 돈을 내지 않았다면 이 도미를 내가 먹을 수 없어! 값을 내고 사먹은 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역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기를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도미 값으로 주었다는 2천원이 정말 도미의 본값입니까? 그 2천원은 도미의 본값이 아니고 바다에 그물을 던져 그 도미를 잡는 어부의 수고한 값과 또한 그것을 어부에게 사서 서울의 시장까지 가져 온 생선장사의 품삯을 합해서 모두 2

천원입니다. 그러니 그 2천원으로는 도미값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어부와 생선장사의 품삯을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하면 그 도미를 먹기 위해서는 세가지 일이 꼭 필요한데 ① 도미를 만들어 바다에 놓아주신 하나님의 일과 ②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과 ③ 도미를 가져온 생선장사의 일입니다. 이 세가지 일이 다 구비되지 않으면 도미 한 마리도 우리들의 입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2천원으로는 제2와 제3의 품삯을 준 것이므로 어부와 생선장사에게는 별로 감사할 필요가 없으나 제1의 고기를 창조하여 바다에 놓아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바다가운데 헤엄치는 고기를 거저 잡은 어부의 값이나 그것을 옮겨 온 생선장사에게도 2천원을 주었다면 이런 좋은 고기를 지어 주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돈을 내면 좋겠습니까? 2천원이나 만원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도미를 지으신 주인에게 그 고기의 본값을 드린다고 하면 한마리의 도미라도 그 값은 얼마어마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하였을지라도 사람에게는 생물을 만드는 힘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의 힘으로 적은 도미 한 마리라도 만들면 그 값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나 옛부터 생물이란 하면 벌레 하나라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없고 이후에라도 이런일은 할 수 없습니다. 생물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산고기를 많이 만들어 바다와 강에 놓아 주시므로 그것을 사람이 그물이나 총으로 거저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물을 모두 다 거저 주신 것인데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그것을 사람이 잡았던지 운반하던지 가공한 품삯을 주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은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돈으로 내가 먹는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에게 패역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런 은혜를 모르는 죄를 결코 그쳐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사랑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구역공과

<6월분②>

창세기공부

제 8 과

아브라함과 롯의 처세

본문말씀 : 창세기 12~24장

읽을말씀 : 창세기 13:8-13

성경은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의 사역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이와같은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을 본 공과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처세를 공부함으로써 얻을 줄 압니다.

1. 롯은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창 13장) 살림이 많아지자 그만 세상에 더욱 끌리어 욕식을 따라 비옥한 도시 소돔성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창 19장). 그러나 세상을 따라 내려간 그의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의 몸만 겨우 살아 나왔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신을 잘못 했습니다. 롯은 영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이성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롯은,

(1)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을 떠나가게 한 욕식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지 못하게 하여 장차 망할 소돔성을 서슴지 않고 찾아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2) 감회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롯은 어른을 섬길 줄도 모르고 미안한 마음도 없는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3)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죄와 타협하는 약자가 되었습니다(창 19:8).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자기와 악한 환경을 이기지 못한 빌라도와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마 27:23-26).

하나님은 신자가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죄와 타협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고픔과 죽음으로 의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탐심을 따라 현실에 치우쳐 살던 롯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의 감화를 잃고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은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좋은 살림도 명예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은 롯의 탐심이 그의 무거운 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 달의 인력은 지구의 인력의 1/6이다)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 롯의 때와 같다고 비유한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은 재산소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소유 문제로 다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관대하였습니다.

땅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어쩌면 이렇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세상의 물질보다 더 큰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히 11:13-16).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천국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향이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천국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욕식을 따르지 않고 관용하며 인내하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처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였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3. 롯과 아브라함의 처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를 택하실 때 완전한 인간성을 가진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를 원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선택의 계획이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선택의 여부를 대히 말할 수는 없어도 이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같은 유명한 사역자들을 보니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허물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므로 하나님이 사역자를 선택하는 조건은 인간의 완전성에 있지 않고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장래를 내다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에 있습니다.

토 의

1. 영의 분별력은 어떻게 얻어지니까?
2. 세상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얻을까?

구역서식

축하합니다(5월 중 결혼)

- 이근수군/고정임집사 아들, 3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손종문군, 주복순양/김보비집사 딸, 5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이동선군/이순근권사 2남, 5일, 오후 1시 고려예식장에서
- 강덕수군/강신명씨, 김상순권사 아들, 6일, 오후 2시, 조선호텔볼룸에서
- 조영철군/조창선씨 아들, 6일 12시 장충교회당에서
- 김성욱군, 전옥영양/최귀영집사 아들, 5일 3시행복예식장에서
- 강영록군/강재구씨 동생, 8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유재숙양/천호구역, 13일 오후 1시 이화예식장에서
- 박백영양/허미주권사 딸, 11일 11시 세종호텔에서
- 이기범군, 신기숙양/송경자집사 아들, 도봉 1구역, 15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김 강군, 임경순양/이숙영권사 아들 16일, 오후 2시, 로얄호텔에서
- 이성수군, 조유경양/조남준, 김영옥 집사 딸 23일 오후 3시, YWCA강당에서
- 이월순양/새신자부교사, 23일, 용인제일교회에서
- 김정복군, 최연옥양/김홍민씨 아들, 청년부 회원 24일 12시 30분, 본교회당에서
- 윤전신양/정보숙집사 장녀, 27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위로 합니다(5월 중 별세)

- 이인원씨/상도 ① 구역. 5일 별세.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1.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성전 건축 준비에 난관의 문제였던 성전부지가 다 풀리어 머지 않아 설계도의 완성과 함께 금년에 정지 작업과 주춧돌 놓는 일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매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히 금년의 과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 해외복음선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6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활동하시는 일꾼들의 선교사님 평신도선교사님들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 복된 땅 이북 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하루에 두번씩 기도로 후원합니다.

■ 구역장 노트 29 ■

해외에서의 교회선택문제(3)

백성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회장>

3.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의 집단체다(엡 2:19-22)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적인 규범이나 조직의 우열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무시되어선 안되지만 그것보다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축 받은 성도들의 연합체라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고전6:19,20) 성도들간에 은혜롭게 서로 교통하면서(엡 4:3, 빌 2:1-4) 세상에 대하여는 빛으로서 살아 움직이는(빌 2:15,16) 하나님의 기관이 될때만 살아계신(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균형있게 가르칠 때에 건전하게 부흥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선택방법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1. 신앙고백이 같은 교회를 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하여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앙문헌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교회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포함한 이상의 신앙고백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살펴서 교회를 선택함이 옳은 줄 안다.

2. 지도자의 신앙과 신학적인 성분을 알아보고 택한다.

한두 편의 설교만 들어도 잘 파악하는 분들은 신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평신도치고 그리 쉽게 알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한두번 말씀을 듣고 속단하는 일은 매우 경솔한 일이다. 더우기 교역자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규정한다는 일은 오히려 두려운 일이 된다.

그러므로 한두번 말씀을 듣고 알 것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들의 신앙의 역정을 알아 볼 것과 목사의 경우 그분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 볼 것이다(고전 4:6,20, 고후 2:17).

3.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정한다.

이미 전회에서 말한바 있지만 교인들간에 불화하는 교회는 피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람과 은혜로 잘 융화된 교회를 택해야 할 것이다.

4. 모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택하는 길

이것은 이상에서 말한바를 스스로 정하기 어려울 때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외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새성전건축 기공예배

5월 25일 오후2시, 논현동에서

교회는 지난 5월 25일(목) 오후2시 시내 강남구 논현동의 새성전건축 부지에서 역사적인 새성전 건축 기공예배를 드렸다.

교회설립 15주년이 되는 1968년에 교회설립기념사업으로 해외복음선교회 창립과 함께 새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1970년 12월에 현재 위치의 대지 9,000평을 구입, 새성전건축의 역원 10년만에 그 첫삽을 뜨게 되었다.

그동안에 건축허가 문제를 싸고 10여년간의 어려움 가운데 지난달 모든 문제가 완전히 결정을 보고 우리의 계획대로 성전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어려움을 꼭 지켜 보아온 교우들이었기에 그날의 기공예배는 더욱 뜻깊은 것이었고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9,000여평중 환지가 확정된 6,067평에 대성전과 교육관, 선교센터 등을 건축하게 될 새성전은 앞으로도 완공까지는 6,7년의 기간에 걸쳐 건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제대로 된다면 훨씬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여금 새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새성전을 위해 이제까지 준비해 온 우리의 경성을 아낌없이 모두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제는 온 교우가 전적 헌신, 전적 기도로 우리교회의 역사적인 과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은 것이다.



예배(김창인 목사 인도)를 드렸다.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모두가 주님께 감사드렸다.

예배실 230평, 기도실 100평, 남녀숙소, 수세식별소 식당, 샤워장, 다목적실, 목사관, 관리인숙소 등 일전 780평의 기도원은 국내에서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손색이 없는 기도원이 된 것이다.

급년 여름에 실시될 주일학교 1부 2부와 각 부서의 여름행사가 본 기도원에서 열리게 됨으로 장소문제나 경비문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본 기도원은 앞으로 계속 훈련을 위해서, 또한 각 성도들의 기도처로서 사용될 것이다.

장로장립식 거행

김영개, 김방진, 강순용, 마성락,
신영대, 김차생 집사 등 여섯분

지난해 10월 30일에 실시된 장로투표에서 산출된 6명에 대한 장로장립식이 지난 5월 1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장립된 6명(김영개, 김방진, 강순용, 마성락, 신영대, 김차생)은 장로고시에서 모든 응시자 가운데서도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하여 본인들이 기뻐하는 물론 총현교회의 이름을 널리 빛내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이로써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는 35명에서 4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순서는 전례에 따라 해당 교회인 우리교회 당회장 김정인 목사가 사회를, 총회신학대학장 김희보 목사가 설교를, 정관일 목사가 기도를 하였다.

교회전화 국번호 변경

우리교회 전화국번호가 지난 6월 4일부터, 27국은 267국으로, 29국은 269국으로 바뀌었다. 한편, 전화번호는 그대로이다.

기도원 완공코 봉헌예배 드려

지난 6월 1일, 1년 6개월 끝에

지난 76년 12월 6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시작된 총현 기도원이 1년 6개월에만 완공을 보고 지난 6월 1일 오전 11시 30분 현지(경기도 광주군 대쌍령리)에서 850여명의 교우가 모인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넘친 봉헌



제 4 회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

6월 18-23일, 충청남북도 중심

농어촌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교회가 시작한 농어촌 교역자 초청훈련이 금년들어 제 4 회째로 오는 6월 18-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금년에는 각지에 흩어져 목회하는 일선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천목회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성공적인 목회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며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자신을 성공적인 목회자로 육성케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열리는데 금년에는 충남북도 지역에 있는 본교단 산하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70명을 초청하여 열릴 예정이다.

6월 19일(월) 오후에 개강예배를 필두로 4박 5일에 걸쳐 열릴 본 수련회는 총회신학대학 학장인 김희보 목사, 윤영탁·신성종 교수 등 교회내외의 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성경공부·특강·기도회 등으로 짜여진 일정에 의해 훈련을 받게 된다.

모범 교사·학부모, 학생 표창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4일 어버이·스승의 주일을 맞아 모범 교사·학부모·학생을 선정하고 5월 14일 저녁예배시 이를 표창했다.

<모범교사> 정운석(어린이 새신자부), 노경모, 원옥순(유년부), 최성현(초등부), 장병기, 최명자(중등부), 유미희, 안유향(고등부), 서용근(장년부),

<모범학부모> 전성일(영아부), 김은희(유치부), 한정순(초등부).

<모범학생> 김세현(영아부), 김영아(유치부), 황단열, 한소연(유년부), 최재석, 박준찬, 전해명, 권윤정, 김승태(초등부).

교육전도사 세분 부임

당회는 그동안 공석에 있던 고등부·중등부 부지도 전도사를 각각 임명발령했다.

고등부 부지도에는 현재 총회신학대학연구원 1년에 재학중인 김남수전도사(31세)를, 중등부 부지도에는 현재 총회신학대학 연구원 1년에 재학중인 김경진 전도사(29세)를 임명했다. 한편 산업전도회에서는 금년에 총회신학대학 연구원을 졸업한 홍정식전도사를 산업전도회 파송전도사로 정했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8.5.7 현재(매월 첫 주 기준)

<집회>					<헌금>				
구	분	남	여	계	구	분	남	여	계
집	주일낮	I부	184	344	528	주 일	I		141,500
		II부	445	1,073	1,518		II		359,215
		III부	336	654	990		III		284,950
		IV부	53	206	259		IV		56,280
	주일저녁		202	394	596		실 일 조		3,911,134
		삼 일	136	318	454		월 정		501,770
	새 신 자	I	20	38	58		잔 사		567,000
		II	21	56	77		생 일		100,000
	영 아 부		91	88	179		경 조		402,000
		유 치 부	82	96	178		건 축		2,101,058
배	유 년 부		164	178	342		부 활 절		8,000
							특별헌금		1,000,000
	초 등 부		163	174	337		새 신 자		2,860
							영 아 부		35,450
	중 등 부		194	154	348		유 치		24,130
							유 년		36,835
	고 등 부		151	147	298		초 등		29,790
							중 등		44,440
	대 학 부		67	85	152		고 등		48,525
							대 학		45,045
회	청 년 부		54	57	111		계		9,699,982
	장 년 부		24	288	312				
	노 년 부		23	70	93				
	산업교육부		25	69	94				
	계		2,435	4,489	6,924				

□ 신급별 교인통계 □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 세 학 습 원	입
2,885	2,708/4,021	1,495/2,711	412/329	269/327
				528/654

토막소식

*...교회 전도위원회는 6월을 총전도의 달로 정하고 각부서에서 특별히 전도에 힘쓰기로 하였다.

*...교회에서는 6월 철야기도회를 9일 저녁 10시부터 유년부실에서 가졌다.

*...5년 전 미국에 가셨던 본교회 이동규 장로가 지난 13일 모교회로 돌아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주일학교 각부별 교사친교회를 갖도록 지시하여 대부분의 부에서는 6월 부별로 친교회를 갖게 될 것이다.

*...어린이 새신자부에서는 4일 타교회전학, 11일에는 교사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장년 새신자부에서는 11일 학생 신앙간증회를 29일에는 교사 기도회를 1월~6월의 교육을 돌아 보며 반성기도회로 청계산기도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유치부에서는 성경이아기대회를 25일 유치부실에서 가진다.

*...유년부에서는 4일 성경퀴즈대회를 18일에는 연구수업(2과 주관)을 25일에는 자체사무 검열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부에서는 11일 타교회 교육실태조사를 위해 타교회 견학을 18일에는 연구수업(5과 주관)을 갖는다.

*...초등부 면터회에서는 4일 정기총회를 18일에는 회보발행할 예정이다.

*...중등부에서는 25일에 연구수업(2과)과 면터회에서는 11일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등부에서는 17~18일 임원훈련을 4일에는 학생특강, 12일에는 2과 주관으로 연구수업을 갖는다.

*...산업전도교육부에서는 24일에 교회와 국가, 자신을 위해 최원기도회를 지하실에서 가진다.

*...대학부에서는 25일 학생특강을 면터회에서는 6일 수도 S.C.E.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청년부 면터회는 11일 발제토의를 가졌다.

*...장년부는 27일에 양로원을 방문한다.

*...노년부는 15일 반별친교회를 가졌다.

전도용 카세트테이프 보급 안내

김창인 목사 설교 녹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도용으로 제작된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 류	보급가격	내 용
90분짜리	900원	설교를 포함한 예배순서 전체가 녹음됨
60분짜리	600원	설교만 녹음됨
녹 음	200원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의뢰할 때

□ 송로는 별도/국내기준—1개 50원

※ 원칙적으로 보급가격은 설교녹음전도를 위한 현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급가격에 구애 없이 설교녹음전도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전후방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인 동역자들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교도소 보호소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그리고 메마른 나 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주문 또는 안내서를 원하시면

100—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전) 267—9937 · 973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

편집하고 나서

*...오랜 진통을 겪고 애쓰던 기도원이 완공되어 지난 6월 1일 현지에서 봉헌예배를 드렸다. 또한 지난 달 5월 25일에는 논현동 새성전 건축 부지에서 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드렸다. 이제 우리교회는 새로운 장을 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전진을 시작한다.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귀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다. 곧 머지않아 새성전 건축 완공 보고를 기대하며 기도원 완공보고서를 실는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고 애용할 수 있는 기도원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기도원은

곧 다가오는 여름의 많은 행사를 치루게 될 것이다. 사용하는 모두가 「주님 감사합니다」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리라.

*...지난 4월에 있었던 제 1회 충현선교대회의 주요 내용들을 실는다. 우리교회의 주요사업중 하나인 해외선교가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지나온 바를 돌이켜 보고 오늘날의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계속적으로 담당하여 펼쳐져야 할 주요한 해외선교의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제 1회 충현선교대회의 열기를 다시 한번 새기며 거기서 얻은 바를 정리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히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읽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보과장/조현명

서기/조선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상우 이성근 김창생

윤형철 박성수 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고제원

이사례

주간/이성근 편집국장/이형수

간사/오태용 고제원

기자/성주진 정윤명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 간 충 현

6월호

제6권 통권 제54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간/이 성 근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7—9937·9738

269—7726(편집실)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6월 18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5월 1일 김영개·김방진·강순용·마성락·신영대·김차생 집사의 장로장림식이 있었다.



5월 14일 아버지·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육위원회에서는 모범교사·모범학부모·모범학생을 표창하기도 했다.



제13회 경로회가 5월 13일(토)에 열려 70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주안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5월 14일 오후 청년부는 홍치모 교수의 「성경적 역사관」이란 제하의 특강을 들었다. 이날 남전도회·산업전도회에서도 특강이 있었다.



한국 청소년 전도협회가 주관한 청소년 초청 전도대회가 지난 5월 24일-27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모였다.



고등부 목요회(학교별 모임)에서는 지난 5월 28일 목요회 대항 성가경연대회를 가졌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의 기도

- 털끝만큼도 흠이 없이 완전한 새성전설계를 주시옵소서!
- 새성전 건축에 필요한 좋은 재료들을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 이 모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돈이 은행에 있사오니 누구를 명령하여 수표를 떼게 하시겠나이까? 모자람이 없이 주시고 바치는 자마다 10배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 또한 좋은 기술자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훌륭한 기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돈에 인격을 팔지 않고 신용을 지키면서 정성을 다하여 새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을 필요한대로 천명 만명 보내어 주시옵소서!
- 때를 따라 좋은 일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좋은 일기를 주셔서, 새성전을 건축하는 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주 앞에 즐거이 헌금한 주의 백성들이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행여 바치지 못하고 “내가 주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가 이 꼴이 되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복 받는 사람만 꼭 차는 우리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낙제하여 영육에 손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글은 지난 5월 25일 강남구 논현동 중현교회 새성전건축 기공예배시 행한 김창인 목사의 설교중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실로암
북가에서